

야쿠스기 삼나무 벌채의 시작

야쿠스기 삼나무는 신성한 나무나 신의 화신으로 숭상받아 목재로 쓰기 위해 벌채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17 세기에 야쿠시마 섬의 불교 승려이자 주자학자이기도 했던 도마리 조치쿠(1570~1655)가 목재 자원의 경제적 가능성을 알아보고 섬 주민들을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벌채를 제안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에도 시대 이전(1500 년대)

12 세기부터 19 세기에 걸쳐 야쿠시마 섬을 포함해 규슈 남부를 지배했던 시마즈 집안은 1586 년에 야쿠스기 삼나무를 다른 번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587 년, 도요토미 히데요시(1536~1598)의 명에 따라 야쿠스기 삼나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

시마즈 씨가 통치했던 사쓰마번은 신민에게 연공을 부과했는데, 야쿠시마 섬의 토지는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로 납부할 수 없어서 섬 주민들은 ‘히라기’라고 하는, 야쿠스기 삼나무로 만든 지붕 널을 바쳤습니다. 매년 약 580 만 장의 지붕 널을 내야 했기 때문에 섬 주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삼나무가 신들의 영역에 속한다고 믿고 깊은 산속의 삼나무 벌채를 주저했기 때문에 조치쿠는 섬 주민들의 의심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조치쿠는 지역의 절에서 법화종 수행을 한 뒤, 교토, 오사카, 에도(현재의 도쿄), 류큐 왕국(현재의 오키나와) 등지에서 거듭 수행했습니다. 여행에 익숙하고 지식도 풍부한 조치쿠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삼나무가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640 년에 조치쿠는 시마즈 번주에게 야쿠스기 삼나무 벌채를 제안하고 산들을 순례하며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조치쿠는 돌아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신들로부터 나무를 벌채해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음을 알렸습니다.

더 안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산신들에게 벌채 허락을 구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베려는 나무에 도끼를 기대어 세워놓고 밤 사이에 도끼가 넘어져 있으면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벌채하기 전에 그 나무의 뿌리에 쌀과 소금, 소주를 놓고 신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다음에는 그루터기 위에 가지를 놓아두어 나무의 영혼을 위로하고, 감사의 표시로 삼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연공으로 바친 뒤에 남은 히라기는 쌀과 밀, 보리, 그리고 다른 필수품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시마즈 씨도 오사카와 교토에서 히라기를 팔았는데, 이것이 시마즈 집안에 상당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조치쿠는 섬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공헌하여 현재도 존경받고 있으며, 그가 태어난 안보에 있는 묘는 오랜 세월을 걸쳐 마을 사람들이

소중히 유지해왔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와 그 후

메이지 시대 초엽에 야쿠시마 섬의 삼림은 거의 대부분이 국유화되어 섬 주민들의 나무 벌채가 금지되었습니다. 1899 년부터 1920 년까지 섬 주민들은 공유림의 반환을 호소하며 몇몇 소송을 했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뿔나무를 모으거나 숯을 만들 수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조리과 난방에 필요한 연료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1921 년, 일본 농상무성은 마침내 야쿠시마 헌법으로 알려진 정책하에 야쿠시마 섬 주민에게 공유림 일부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고스기다니 마을

1920 년대 초엽에 섬 주민들이 삼림을 이용할 권리를 되찾은 결과, 목재 벌채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목재를 안보 마을 깊은 곳에 있는 내륙의 산들에서 운반하기 위한 삼림 궤도가 1923 년에 건설되어, 벌목꾼들의 베이스캠프가 되는 고스기다니 마을이 1924 년에 안보가와 강 상류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주해온 가족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어졌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이 부흥함에 따라 많은 건설 자재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벌채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60 년에는 133 세대 540 명이 이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윽고 이 지역의 야쿠스기 삼나무가 거의 다 벌채되자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고스기다니 마을은 1970 년에 폐쇄되었습니다. 고스기다니는 야쿠시마 섬에 설립되어 나중에 목재와 숯 산업이 쇠퇴해가자 방치된 두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